

# 민간신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 무 병 \*

## 目 次

1. 머리글
2. 신앙연구의 성과
3. 신앙연구의 과제

## 1. 머 리 글

제주대학교 국문학과에서 실시한 마을조사는 70년대 초 '마라도학술조사'가 그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마라도 조사는 아쉽게도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학술조사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은 1973년 6월 민속박물관의 부설기구로 국문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재연구회'가 결성되고, 한경면 용수리와 성산읍 오조리 동서 양해촌의 민간전승과 해촌생활을 조사하여 1974년에 보고서를 낸 것이 그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그 후 1975년부터는 국어국문과에서 '학술조사보고서' 형식으로 해마다 보고서를 내어 오다가, 국어교육과가 갈려나가면서 양과에서 해마다 조사지를 선정하고, 여름방학 3~4일간을 정하여 교수·학생 합동으로 공동조사하여 보고서를 내어 온지 20여년이 지났고, 30개 단위 마을의 조사를 마쳤다.

제주지역 학회나 연구단체로서 30여개 마을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낸 경우가 없었다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국어교육과 교수 학생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은 지대한 것이다. 제주도학에 관심있는 국내외 학자들은 제주지역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금은 『제주도 부락지』 I~IV(4권)로 정리된 이 '학술조사보고서'를 찾게

\* 제주교육박물관. 문학박사.

된다. 필자 역시 민간신앙을 조사하면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래 자료란 꾸준  
히 쌓아온 업적이 짧은 기간에 조사 보고된 것보다 큰 힘을 발휘하며, 소중한 것이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마을은 아래와 같다.

-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국교 1984. 8. 부락지 I)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국교 1988. 7. 부락지 I)
-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국교 1978. 8. 부락지 II)
-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국교 1983. 8. 부락지 II)
- 북제주군 애월읍 락지리(국문 1983. 8. 부락지 II)
- 북제주군 구좌읍 연평리(국문 1973. 8. 부락지 III)
-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국문 1974. 2. 부락지 III)
-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국문 1985. 8. 부락지 III)
-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국문 1987. 7. 부락지 IV)
-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국문 1989. 8. 부락지 IV)
-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국교 1989. 7. 부락지 IV)
- 북제주군 추자면 각 리(국교 1990. 7. 백 록 8)
-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국교 1992. 7. 백 록 10)
- 제주시 봉개동 동·서회천동(국교 1993. 7. 백록10)
-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국교 1994. 8. 백 록 11)
-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국교 1985. 8. 부락지 I)
-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국교 1986. 7. 부락지 I)
-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국교 1987. 8. 부락지 I)
-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합동 1981. 7. 부락지 II)
-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국문 1972. 8. 부락지 III)
-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국문 1974. 7. 부락지 III)
-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합동 1976. 8. )
-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국문 1974. 8. 부락지 III)
-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국문 1975. 8. 부락지 IV)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합동 1977. 7. 부락지 IV)
-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국문 1991. 8. 국문학보 11)

- 남제주군 남원읍 신예리(국문 1992. 8.)
-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국문 1993. 8. )
- 서귀포시 강정동 (국문 1994. 8. )
- 서귀포시 보목동 (국고 1991. 7.)

마을조사 보고서에 보고된 민간신앙의 자료는 제주도 민간신앙 연구의 기초자료이며, 제주도 자연 부락의 수로 따진다면 아직은 10분의 1밖에 조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지금까지 조사된 민간신앙 부분의 성과를 반성·점검하고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충실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과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 2. 신앙연구의 성과

기초자료는 뒤에 연구하는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보다 더 완벽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고서가 여러 차례의 확인과 실증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을 경우는 자료의 신빙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왕에 조사하는 거 좀 더 정확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을 소홀히 했던 관계로 자료의 신빙성을 상실한다면, 보고서는 상당 부분 재조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30개 마을의 신앙조사를 살펴보면, 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우선 지적해 보고자 한다.

### 1) 신앙연구의 성과

대학의 한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보고서를 망라한 『제주도 부락지』 I ~ IV권은 그 연륜에서 제주도학의 선구적 업적이었고, 제주대학만이 할 수 있는 국문학연구로서 ‘제주도학’ 또는 ‘제주민속연구’의 성과를 쌓았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필자가 담당한 신앙연구의 성과를 지적해 본다.

첫째, 제주도 민족지 조사의 기초를 마련했다.

둘째,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사라져가는 무속적인 당굿이나 비념, 유교식 고사 등을 발굴해내었고, 의례형식이나 유교식 마을제의 축문 등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있다.

넷째, 당이나 포제단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현대종교·민간신앙으로 양분되는 신앙조사의 기본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 2) 신앙연구의 문제점

신앙연구의 문제점은 기존의 성과에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시정·보완해 나갈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30개 마을의 신앙조사는 제주도 민족지 조사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제주도 민속 조사의 입문서라 하여 손색이 없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완성도 있는 민족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2~3일 동안 하는 학생들의 현장학습에서 얻은 결과로서는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론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겠고, 지금까지 선배들의 소극적이거나 위문 형식의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 교수·선배·학생의 공동 조사연구 형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0개 마을의 신앙조사는 제주도 마을 단위의 신앙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지대안교 등 현대 공인종교, 부락신앙으로서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적 당굿, 가정신앙으로서 철성제, 문전제, 철갈이, 산신제, 조왕제 등을 소개함으로써 마을의 신앙 구조를 대충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신앙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기록은 현장성·연행성을 갖춘 내용이라기보다는 제보자의 제보만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은 기록이다.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0개 마을의 신앙조사는 사라져버린 당굿, 비념, 고사 등을 발굴 기록함으로써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말축굿(우도면 하우목동)은 지금은 없어진 곳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눈에 띈다. 그러나 말축굿의 내용을 보면, 백중제이고 산신놀이인데 어째서 '말축굿'인지, 조짚이나 바가지로 자그맣게 만든 배에 제물을 싣고 보내는 것은 배방선이다. 그렇다면 굿은 본도의 굿이 말을 육지로 싣고 보내는 테우리들을 위한 우도식 백중마불립제요 테우리코사인데 어째서 '말축굿'인지

납득이 안간다. 단지 조사자의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는 의견이 "답으로 하여금 부락 내의 메뚜기를 전부 잡아먹게 하고 그 답마저 찢어 없애버림으로써 메뚜기를 말끔히 없애는 유감주술인 것 같다"고 하고 있다. 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은 '말축 굿'에 대한 납득보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차라리 단순한 객관적 관찰에 끝나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제보하는 내용의 솔직한 기록이어야 한다.

특히 사라진 굿이나 비뉘 고사의 기록은 시간이 지난 뒤 보고서만이 유일한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야지 개인이 주관적 판단이 기록되었다면, 후대에 가서 전혀 엉뚱한 오해를 낳는 기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말축굿>이 충해를 막기 위한 굿인지, 메뚜기철에 하는 백중 제여서 <말축굿>인지 한 제보자의 기억전승을 적은 기록만으로는 아리송하기만 할 뿐이다.

30개 마을의 신앙조사는 당이나 포제단에 대한 사진이나 배치도가 나온다. 여기에 덧붙여 1/5000의 지도에다 당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결국 그 마을에 가서 다시 묻고 찾아야 하는 것이 당이요 포제단이라면, 당이나 포제단으로 가는 안내도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는 당이나 포제단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30개 마을의 신앙조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공인종교와 부락신앙, 가정신앙, 조상숭배 4부분으로 나누어 조사 보고하고 있다. 그것은 마을조사의 기본틀이 되어 고정되고 있다. 기본틀이 있으면, 신앙을 조사 기록하는 데 편리하다. 부서를 나누어 조사할 수 있어서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경직되고 일률적인 조사, 판에 박은 조사가 될 수도 있다. 대원칙은 필요하겠으나 마을 여건에 맞는 분류, 마을 신앙을 보다 적절하게 조사 보고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결국 전체적인 분류가 생겼으면 한다. 처음부터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틀, 그 그물 안에 들어온 내용만을 기록하느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분류 항목을 경우에 따라 변형시키면서라도 폭넓고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민간신앙에 대한 조사는 단순한 신앙의 기록이 아니라 신앙민이 주체가 되서 벌이는 신앙내용에 대한 기록이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의례와 민속 놀이,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의례, 신앙과 민속놀이, 신앙과 세시풍속을 관련지워 기록하거나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을 따로 항목설정하여 조사 기록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

어교육이나 국문학의 조사연구가 아니라 민족지적 마을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 3. 신앙연구의 과제

지금까지 학술조사보고서 신앙부분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지금은 세계화·지방화를 역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 지역문화의 주체인 대학은 세계화의 허상을 쫓는 것보다 지역문화를 탄탄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지방화 시대의 대학은 지역의 문제에 보다 깊고 체계적인 연구에 천착하여야 한다.

국어교육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어문학회는 선배·교수가 더불어 학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선배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학회지 또한 단순한 조사보고서에서 연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는 전문적 체계적 연구를 학회 회원들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학술조사 보고서도 제 모양을 갖춘 견실한 학회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자료의 단계에서 적어도 하나의 완성된 조사보고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민간신앙 연구는 기존의 조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보고서를 마을 단위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